

광주은행 배드민턴 남자 실업팀 창단

유갑수 초대 감독 선임, 선수 7명 구성...내년 3월 리그전 데뷔 정해
3년 내 전국대회 우승·국가대표 발탁 도쿄올림픽 메달 획득 목표



광주은행은 27일 은행 본점에서 배드민턴 남자 실업팀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팀은 유갑수 감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은행 배드민턴 남자 실업팀 창단식은 27일 은행 본점에서 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이날 창단식에는 송종욱 광주은행 배드민턴 남자 실업팀 창단식을 갖

행장과 피길연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홍성길 광주시배드민턴협회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은행 배드민턴팀의 초대 감독은 KT&G와 KGC인삼공사 감독을 역임한 유갑수씨가 선임됐다.

선수는 엄지관(전 김천시청), 임종근(전 인천공항공사), 임종우(전 MG새마을금고), 이주원(전 단풍), 이승민(전 경남파기대), 최현범(전 웅상고), 박무현(전 웅상고)으로 구성됐고 한재현 트레이너가 합류했다.

광주은행 배드민턴팀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전국복합종별배드민턴리그전을 데뷔전으로 정하고 훈련을 시작했다.

창단 후 3년 내 전국대회 우승과 국가대표 발탁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 은행장은 "이번 창단을 통해 배드민턴이 광주·전남지역 인기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KIA 박진태 등 14명 상무야구단 최종합격

모두 프로선수...내년 1월 15일 논산 훈련소 입소

국군 체육부대(상무) 야구단 합격자가 확정됐다.

27일 국군체육부대는 2018년 1차 국군대표 선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야구 종목에서는 14명이 선발됐다. 합격자는 모두 프로 소속이다.

투수는 박진태·남재현(KIA 타이거즈), 강동호·김유영(롯데 자이언츠) 김찬호·김정민(SK 와이번스), 임정호(NC 다이노스) 등 7명이다.

포수 이정훈(KIA), 박상연(한화 이글스)과 내야수 이재근(KT 위즈), 김용빈(넥센 히어로즈), 최정용(KIA 타이거즈)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외야수는 김준원(NC), 김재유(롯데) 등 2명이다.

김준원, 박진태 등 올 시즌 1군 무대에서 활약한 선수들도 눈에 띈다.

김준원은 올해 정규시즌 10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0(124타수 31안타) 8타점 2도루 19득점을 기록했다. 두산 베어스의 플레이오프에서는 슈퍼캐처를 선보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진태는 올해 38경기에서 57%이닝을 소화하며 1패 3세이브 2홀드 평균자책점 6.55의 성적을 냈다. 잠재력을 드러내며 KIA 불펜에 힘을 더했다.

1차 서류합격자 29명 중 체력 측정, 신체·인성 검사에서 15명이 탈락했다. 경찰청 야구단에도 합격하지 못한 SK 포수 이용구는 1차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포지션 고배를 마셨다.

최종 합격자 14명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소한다.

뉴시스

V리그 남녀 인기 1위, 신영석·양효진...올스타전 팬 투표

한국배구연맹, 48명 올스타 명단 확정

역대 최대 팬이 참여한 도드라진 2017~2018 V-리그 올스타전 팬 투표와 전문위원회 추천 선수를 포함한 총 48명의 올스타 명단이 확정됐다. 팬 투표에서는 신영석(현대캐피탈)과 양효진(현대건설)이 최고 인기 선수로 선정됐다.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한국배구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를 진행했다. 올스타 팬 투표에 참여하는 팬들이 꾸준히 증가(2015~2016시즌 5만8671표, 2016~2017시즌 9만4673표)했다. 이번 올스타 팬 투표에는 총 10만8872표가 투표됐다. 지난 시즌보다 14.9% 증가했다.

남자 K스타팀의 신영석(현대캐피탈)과 여자 V스타팀의 양효진(현대건설)이 각각 8만2156표, 8만 575표로 역대 최다투표를 기록하며 남녀부 최고의 별로 선정됐다.

신영석은 이번 시즌 탁월한 블로킹과 속공으로 맹활약, 처음으로 올스타전 최다득표자로 선정됐다. 양효진 역시 센터로서 돋보이는 블로킹과 득점능력으로 지난 시즌 이재영에게 내준 올스타전 최다득표 타이틀을 되찾았다.

이번 올스타 팬투표 결과 지난 시즌 올스타전에서 앙숙 구도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전광인과 문성민이 한 팀으로 뿔뿔이 떨어져 어끌 조화를 보여준 것인 지대를 모은다.

여자부에서는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다시 한 번 한 팀이 되면서 지난 시즌 이재영의 부상으로 함께 펼 수 없었던 아쉬움을 달랜다.

감독 투표에서는 K스타팀 최태웅 감독(현대캐피탈)과 이정철 감독(IBK기업은행), V스타팀의 신진



신 감독(삼성화재)과 이도희 감독(현대건설)이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감독으로 선정됐다. 한편, 2018년 1월21일 의정부 실



내체육관에서 펼쳐질 올스타전에서는 선수들의 다양한 모습과 다채로운 팬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뉴시스

2018시즌 KPGA 코리안 투어, 17개 대회·총상금 141억원 진행

올시즌 보다 2개 감소했지만 총상금 1억5000만원 증가



한국프로골프협회 양휘부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8 KPGA 코리안투어 일정과 대회 규모를 밝히고 있다. 2018 KPGA 코리안투어는 17개 대회와 141억원의 총상금으로 진행된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27일 "2018 KPGA 코리안 투어는 17개 대회와 141억원의 총상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시즌보다 대회 수는 2개 감소했지만 총상금은 1억5000만원이 증가했다. 조울 중인 카이도골프코리아 후원 대회 3개 추가될 경우 2018 KPGA 코리안투어는 20개 대

회, 총상금 156억원 규모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2017 시즌 차려진 티업·지스윙 메가 오픈 프레젠티드 바이 드립과 크CC, 유진그룹·울포유 전남오픈 위드 무안CC(카이도시리즈), 진주저축은행 카이도 남자오픈 위드 블랙캐츠(카이도시리즈)가 빠졌다. 대신 KB금융 챔피언스컵(가칭)을 비롯해

KPGA 인비테이셔널(가칭), 셀러브리티 프로야이 신설됐다.

카이도시리즈로 열린 온리 제주 오픈과 NS홈쇼핑 군산CC 전북오픈, 다이내믹 부산오픈은 2018 시즌 단독 개최로 대회를 이어간다. 셀러브리티 프로야이 PGA투어 AT&T 페블비치 프로야 대회와 유사한 방식의 대회로 국내외 유명인과 함께

"KPGA 코리안투어의 축제", 골포를 통한 나눔 행사'를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대회 운영 방식만을 고수하지 않고 더욱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대회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상금 10억원 이상 대회는 8개로 1개 늘었다. 총상금 15억원으로 KPGA 코리안투어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내건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9월에서 5월로 자리를 옮겼다. 시즌 개막전과 최종전은 2017시즌과 마찬가지로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과 카이도골프 투어챔피언십으로 확정됐다.

양휘부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시즌 종료 후 해를 넘기지 않고 다음 시즌 일정을 발표하는 것은 선수들이 한 해 일정을 조율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 스스로도 한 발 앞서 시즌을 준비하며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라며 "한국프로골프의 중흥과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해 줘서 다양한 대회가 신설됐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직 논의 중인 몇몇 대회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협의를 마무리해 차질 없이 대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현영민 "노동자에 가까웠던 선수"

2002 멤버 마지막 은퇴

2002년 한일월드컵 멤버 현영민(38·전남)이 그라운드를 떠난다. 26일 전남 드래곤즈 사무실을 찾아가 선수에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02년 4강 멤버 23명 중 마지막 퇴장이다.

현영민은 은퇴 사실이 알려진 27일 "유상철) 감독님이 새롭게 오셨는데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다. 나 보다는 팀을 위한 결정이었다"면서 "말로는 지금의 기분을 다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전화로 말했다.

나흘이 지나면 우리나라로 마흔이 되는 현영민은 2~3년 전부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즌이 끝날 때마다 은퇴를 떠올렸다. 그래서인지 큰 충격으로 다가오진 않는다. 생각보다는 선수 생활을 오래한 것 같다"며 웃었다.

경희고와 건국대를 졸업한 현영민은 2002년 울산 현대에 입단해 FC서울 성남FC, 전남을 거치면서 K리그에서만 437경기를 뛰었다. 2006년에는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로 넘어가 UEFA컵(현 유로파리그) 본선도 경험했다.

프로 선수로 500경기 이상을 소화했지만 시작과 끝만큼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데뷔전은 아직 도 생생하다. 부산 아이파크전이었다. 마지막 경기도 기억에 남는다.

은퇴부턴가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뛰었다. 우승도 해봤지만 첫 경기와 마지막 경기가 제일 인상 깊었다."

현영민을 대변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2002년 한일월드컵이다.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은 예상을 깨고 현영민을 최종 엔트리에 넣었다. 장기인 롱 스토크와 좌우 측면 수비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성실한 훈련 태도는 덤이었다.

하지만 현영민은 정작 본선에서 이영표, 송종국에게 밀려 한 경기도 뛰지 못했다. "선수는 경기에 뛰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힘들었다. 뛰고 싶었지만 내가 봐도 뛰어난 선배들이 많아 내 자리가 없었다. 그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졌다. 그 멤버에 속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선수 시절 본의 아니게 등한시한 가정에도 충실할 생각이야. 열 살, 여섯 살 두 딸과 갓 100일이 지난 아들을 돌보는 재미에 빠져있다. "떨어져 지내면서 소소한 부분들을 놓치고 싶었다. 이제는 아빠 노릇 좀 해볼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까. 스스로를 "기술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까웠던 선수"라고 평가했다. 전남은 내년 시즌 홈 개막전에서 현영민의 은퇴식을 열 예정이다.